

# 강진군, '서울 나들이 행사' 개최

### 청자·남도음식·갈대밭 등 10월 3대 축제 홍보

문체부 선정 '2019 올해의 관광 도시' 강진군이 10월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를 대비하여 지난 25일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서울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인 청계광장에서 '강진 서울 나들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가을로 개최시기를 변경해 추진되는 제47회 강진청자 축제를 비롯해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 축제가 풍성한 '10월의 강진'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강진군은 군민배우의 참여로 사외계 자장거리에서 열리는 마당극 공연인 '뽕류 주도'와 지역만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스토리를 관광

자원화 하는 '푸소 체험' 등 관광객들의 기호를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진의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 현장의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 가능한 부대행사가 진행되었다. 물레성형과 전통 가마 소성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VR 및 AR 체험, 나만의 머그컵을 즉석에서 만드는 체험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눈길을 끌고 있는 백운우판자 시음행사, 조선시대 인물물자현 마당극인 뽕류 주도 공연이 열려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서울 시민들의 힐링 공간인 청계광장에서 강진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10월 본격 개장을 앞둔 다산배아채 골프&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확

충과 볼거리, 즐길 거리 등 체류형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대를 머무르는 여행지인 강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완도군 새내기 공무원 현장 학습 실시

완도군은 지난 24일 실무 수습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마인드 함양과 공직 환경 적응력 향상을 위해 현장 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 학습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체험과 장보고기념관, 완도타워 등 관내 주요 명소를 돌아보고 빙그레 시네마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해양치유 프로그램 체험은 신규 공무원들이 청정한 자연 환경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 군의 역점 사업인 만큼 직접 체험해보는으로써 앞으로 주민들에게 해양치유산업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에 신지평사심리해수욕장 소나무 숲 아래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인 해변 요가와 필라테스를 실시했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무 수습 공무원들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했는데, 직접 해보니 머리고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 힐링하는 시간이었다."며 "주변 사람들에 꼭 체험해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적극 수행하는 공직자의 자세, 청렴, 친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완도군 관계자는 "신규 공무원은 우리 군정을 이끌고 갈 인재들로 사무실에서만 실무 수습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고를 하는 게 어렵다."며 "이번 현장 학습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장흥군, 청년정책 효율적 추진 위해 우수사례 접목

장흥군 청년발전협의체는 지난 24일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순천시에 소재한 청춘창고와 기적의 놀이터 등을 견학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청년발전협의체 운영방향, 청년 일자리 문제, 기적의 놀이터 특징 등을 벤치마킹해 지역 인구청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춘창고는 순천역 인근의 농협 창고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현재 22개의 청년 점포와 공연 및 전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돼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적의 놀이터는 인공 놀이기구 없는 자연소재인 돌, 통나무, 언덕, 잔디 등을 이용해 만들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통합놀이터로도 유명하다.

이날 벤치마킹에 참여한 청년발전협의체 위원은 "오늘 벤치마킹을 통해 청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과 지역 정책 발굴에 청년의 참여가 중요함을 공감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우수사례를 잘 접목하여 우리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진도군, '울돌목 주말장터' 새단장하고 '재개장'

진도군 '울돌목 주말장터'가 새단장을 끝내고 오는 27일 재개장 한다.

진도대교 아래 위치한 '울돌목 주말장터'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생산한 진도군의 농·수특산물 등을 판매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진도군의 또 하나의 관광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

군은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2층 컨테이너 상가와 야외용 파라솔·탁자, 그늘막 설치 등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또 지난해 '울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장터 상인회를 설립하여 상인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마쳤다.

주말장터 상인회는 여수 남만포차, 전주 남부야시장, 부산 부평강통야시장 등 각 지역의 명소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시장을 방문·견학을 실시하기도 했다.

'울돌목 주말장터'는 연중 주말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명랑대첩축제, 명절 등 진도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안전시설과 조명 등을

설치하여 야간 개장도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산품을 활용하여 만든 다채로운 음식을 판매할 것이며, VR 홍보사진관, 허브를 이용한 고추장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 했다"며 "많은 관광객들이 '울돌목 주말장터'를 찾아 보고 듣고 맛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신비의과일 '영암 무화과 축제' 개최

무화과의 최초 재배지이자 최대 생산지인 무화과의 고장 영암군은 코앞에 다가온 '2019 영암무화과 축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입을 알렸다.

'꽃을 품은 무화과 맛과 멋!'이라는 주제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영암 자동차국제 경주장 내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무화과 판매농가들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무화과 관련 제품 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 홍보·전시관 운영, 무화과 무료시식회, 관광객들의 직접 참여·체험행사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영암 무화과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풍부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영암무화과 축제는 27일 개막식과 함께 진행되는 개막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에 돌입한다.

27일부터 29일까지 풍물패 공연, 통기타 연주, 무화과 퀴즈이벤트, 무료시식회, 가요제 등 각종 공연이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설 행사로 전통문화체험, 무화과 홍보 전시관과 직거래 장터에서 신선한 무화과 생과와 무화과 관련 제품 등 고급스러운 맛을 느끼면서 전남 GT대회 행사인 모터스포츠 경주, 슈퍼카 및 자동차 튜닝부품 전시관람, RC카 체험 등 풍부한 볼거리까지 보고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 함평군, 식량·특화작물 선진지서 기술보급 평가회 개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4일 전북 김제 등 식량·특화작물 선진지를 방문해 기술보급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식량·특화작물

분야 기술보급 사업을 평가하고 신기술 확대보급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지역농업인 40여 명은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죽산 콩 영농조합법인과 백산농협 벼 소식재배 단지를 방문, 이앙기별 주수 비교와 품종별 소식재배 전시포 등을 두루 살펴보고 실증단지 내 생육환경을 관찰했다.

또한 함평 지역 내 포도 등 특화

작물 선도 농가를 방문해 지역에 접목가능한 포도 재배기법을 교육 받고, 아열대 작목의 시장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이항만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국내 식량·특화작물 재배 선진지를 지속 방문해 다양한 선진농업기법을 습득하고 향후 기술보급 사업에 접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